

1 개요

괘네킷당본풀이는 구좌읍 김녕리 괘네킷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송당본향당의 여섯째 아들로 태어난 괘네킷도는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지자 용왕국에 가서 사위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는 탓에 부부 함께 무쇠상자에 담겨 쫓겨나 강남천자국에 가서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운 뒤 제주도로 돌아가 김녕리 괘네킷당의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소천국은 알송당에서 솟아나고 백주또는 강남천자국 백물레왓에서 솟아났다. 백주또가 천기를 살펴보니 배필이 송당리에 있음을 알고 찾아가 혼인을 하였다. 백주또는 여섯째 아이를 잉태하자 소천국에게 농사를 짓자고 제안하였다. 소천국은 오봉이굴왓에 있는 넓은 밭에 가서 밭을 갈기 시작하였다. 백주또가 국 아홉 동이, 밥 아홉 동이를 지어 점심을 차리고 가져 가니 소천국은 길마를 덮어두고 가라고 하였다. 태산절 중이 지나가다가 밥을 달라고 하자 흔쾌히 허락하였는데, 나중에 소천국이 점심을 먹으려고 보니 남은 것이 없었다. 소천국은 배가 고프 나머지 밭갈이하던 소를 잡아서 구워 먹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웃 밭에 있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고, 배때기로 쟁기를 밀면서 밭을 갈았다. 다시 찾아온 백주또가 그 모습을 보고 사정을 들은 뒤에 남의 소를 잡아먹는 도둑놈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며 살림을 가르자고 하였다. 백주또는 바람 위 당오름에 좌정하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 고부니모르에 좌정하였다. 소천국은 사냥을 하면서 정동칼챗말을 아내로 맞아 고기를 삶아먹으면서 살았다.

백주또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 세 살이 되니 소천국을 찾아갔다. 아이는 아버지 수염을 당기고 가슴을 치면서 놀았다. 소천국은 화가 나서 아이를 죽이려고 무쇠상자에 넣어 자물쇠로 잠근 뒤에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어지럽혔다. 용왕국대왕이 세 딸을 차례로 보내어 살피게 하고, 상자를 내리게 하여, 열게 하였다. 이 일을 두 언니는 못하고 막내딸이 해결하였다. 상자를 여니 옥 같은 도령이 나타나 강남천자국 난리를 평정하러 가다가 풍파를 만났다고 하였다. 용왕국대왕은 천하명장으로 알고 사위로 삼고자 하였는데 막내딸만 받아들이므로 둘을 혼인시켰다. 사위에게 무엇을 먹느냐고 하니 돼지나 소도 한 마리를 한 번에 먹는다고 하였다. 날마다 대접하였더니 창고가 모두 비어갔다. 용왕국대왕은 더 이상 먹일 수 없어 사위와 딸을 무쇠상자에 담아 물에 띄워 버렸다.

상자는 강남천자국에 닿아 갖가지 조화를 일으켰다. 황봉사를 불러 점을 보게 하니 천자가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천자가 그 말대로 하니 상자가 열렸다. 도령과 아기씨가 있어 물으니 조선 제주도에서 세번 난리를 막으러 왔다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천자가 도원수로 삼고 군사를 내주니 머리 둘, 셋, 넷 뚫은 장수를 차례로 죽이고 난리를 일시에 평정하였다. 천자가 제후로 삼겠다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상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다. 그리고는 스스로 전선을 짓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제주도로 돌아갔다.

괘네깃도가 비자림 근처에 이르러 포를 쏘니 소천국과 백주또가 무슨 일이냐고 하녀에게 물었다. 하녀는 세 살 적에 죽으라고 무쇠상자에 담아 바다에 띄운 아이가 아버지를 치려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에 듣고 소천국은 무서워서 고부니모를로 가서 죽고, 어머니도 달아나다가 당오름에 가서 죽었다.

괘네깃도는 사냥을 하여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군사를 해산시켜 돌려보낸 뒤에 좌정할 곳을 찾다가 김녕리 괘네기로 갔다. 마을에 흉험을 주어 자신의 존재를 알려 사람들을 만나 자신에게 돼지로 제향하라고 하여 돛제를 받는 신으로 좌정하였다.

③ 특징

당신본풀이를 대표하는 전승이다. 송당계 본풀이를 대표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송당본향당본풀이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당계 당신본풀이지만 괘네깃도는 다른 형제의 본풀이와 다른 면이 있다. 형제들은 모두 본향신으로 좌정하면서 돼지고기를 금기한다. 그러나 괘네깃도는 본향신이 아닐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받는다.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받는 이른바 돛제의 신이다.

④ 핵심어

웃손당, 송당, 송당본향당본풀이, 백주또, 소천국, 괘네깃도, 돛제, 당오름, 고부니모르, 괘네깃당, 김녕리, 알송당, 백올레왓

⑤ 원전 서지사항

괘네깃당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